

2026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총 인원 (명)			
1	'26.7.28.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6	1	13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조정현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최기웅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국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7	2	-	-	9	-	9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9	-	-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보도	<학교 급식노동자 관련 보도> 학교 조리 실무사들의 파업내용을 전하면서 파업에 대한 핵심내용이 전달되지 못한 점이 있음. '학교 급식 비정규직 조리 실무사 파업'으로 용어가 정정되어야 하고 방학에 임금이 나오지 않아 생계가 위협받는 부분도 반영되면 좋겠음. 향후 쟁점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협상과정 이 담겼으면 좋겠음.	7/21 '급식 파행' 대전 둔산여고 저녁 급식 9월 재개 소식을 비롯해 이후 7/22, 7/29 후유증으로 해당 학교 전 교장과 조리실무사 기소와 숨치 등 이후 상황과 교육청 징계 움직임에 따른 교직원 반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함. <26. 7월 조치>	'26.6월
보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보도> 국군사관학교가 2036년까지 자운대에 들어서면 인구유입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현재 조성 부지에 어떤 시설이 있고 오히려 기존 인력과 기관들이 빠져 나가는 건 아닌지 후속 보도가 필요함	8월 9일 방송된 <시시각각>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자운대로, 기대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각 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 사관학교 창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명함. <26. 8월 조치>	'26.7월
보도	<폭염 위험 지도 관련 후속 보도> 작년에 폭염 위험 지도 보도를 통해서 문제제기와 행정적 차원의 제안도 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보완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재난을 일회성 사건으로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의 사전 예방 조치와 제도개선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바람. 폭염 지도 보도 관련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음. 올해도 비슷한 계획이 있다면 노인층이나 빈곤층이 어떻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을지 보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면 좋겠음.	지난해 세분화된 폭염 지도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제기한 자사 보도 이후 올해 8월 대전 유성구가 100m 단위로 골목길까지 살피는 폭염 지도를 구축해 선보인 변화를 8/5일 뉴스로 보도함. 새로운 폭염 지도로 실제 폭염 대책이 정밀하게 필요한 주거 밀집 지역 현장을 찾고,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26. 8월 조치>	'26.7월
보도	<지원 정책 등 정보 안내 관련> 에너지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폭염 사실의 보도 보다는 쉼터 위치, 지원 대책 등 방법론을 더 궁금해 함. 짧은 뉴스의 한계는 있었지만 지원 제도 등 정보를 뉴스 말미에 소개해주면 좋겠음.	8/7 보도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폭염 속 마을 주민을 주기적으로 살피는 내용과 함께 세종시 36곳 편의점이 무더위 쉼터로 제공된다는 점, 대전의 통진사 대리점 70곳이 무더위 쉼터로 개방되는 정보를 자세히 보도함. 대전 서구도 행정복지센터를 주말과 평일 모두 밤 10시까지 연장 개방하는 정보도 전달함. <26. 8월 조치>	'26.7월
총 건수		4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https://tjmbc.co.kr/MinutesOfTheMeeting>)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 고 (총 선임기간)
위원장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문선혜	전원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위원	조정현	대전위캔센터장	대전YWCA	여성단체	26.5.1~28.4.30
위원	박지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6.5.1~28.4.30
위원	김혜영	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	대전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인권단체	26.5.1~28.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폭염 위험 지도 관련 후속 보도> 작년에 폭염 위험 지도 보도를 통해서 문제제기와 행정적 차원의 제안도 해주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보완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음.	작년 폭염 위험 지도 관련해서 위험 요소들을 판단했다면 후속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뉴스 후' 포맷 등을 통해 과거 보도 내용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추적 보도하도록 하겠음.	○		
	재난을 일회성 사건으로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의 사전 예방 조치와 제도개선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주길 바람	이상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지역민들이 더 안전하게 대응할 나갈 수 있도록 예방적, 제도적 보도들을 더 집필해 나가겠음.			
	폭염 지도 보도 관련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음. 올해도 비슷한 계획이 있다면 노인층이나 빈곤층이 어떻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을지 보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면 좋겠음.	농촌 어르신들은 폭염속에서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취약한 상황인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찾아보고 보도하도록 하겠음.			
보도	<인터뷰 구성 관련> '밤낮 없는 찜통더위'를 보도하면서 영상은 대전 둔산동이 나왔고, 바로 이어서 나온 인터뷰에는 대전시민이 아닌 부산시에 거주하는 분이 나왔음. 대전의 찜통더위를 얘기하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인터뷰이가 나와서 어색하게 느껴짐.	대전이 전국적인 도시이다 보니 부산에서 여행 오신 분이 인터뷰를 한 것 같음. 인터뷰를 중대경보 지역인 부산만큼 덜다는 표현으로 구성했다면 미스매치가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제작하겠음	○		
보도	<뉴스의 가치 관련> 뉴스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찾아내고 피해도 예방된다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음. 천리포 수목원 뉴스는 국가 유산에 대한 의미보다 설립자에 초점이 맞춰져 아쉬웠음. 음식점 불법 영업 보도도 발 빠르게 했더라면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내재된 의미를 찾아가는 게 뉴스의 가치라고 생각함. 천리포 수목원 보도의 경우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음. 음식점 불법 영업 보도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보도에 주력하겠음.	○		
보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보도> 국군사관학교가 2036년까지 자운대에 들어서면 인구유입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현재 조성 부지에 어떤 시설이 있고 오히려 기존 인력과 기관들이 빠져 나가는 건 아닌지 후속 보도가 필요함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해당 지역 부지 수용 가능성부터 기존 기관 일부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영향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 지역민들이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치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음.	○		
보도	<청소년 의견 수렴 관련> <시시각각>에서 청소년 '혐오 놀이' 주제를 다루면서 논의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음. 미성년자를 방송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제약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 이 용어를 사용하는지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중요함. 스튜디오 출연은 제약 요소가 있으니 ENG 현장 촬영으로 청소년들의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 있겠지만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사전 인터뷰나 현장 취재 방식 등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노력을 해주길 바람.	목소리를 인서트 편집한 후 패널들이 같이 시청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겠음.			
보도	<지원 정책 등 정보 안내 관련> 에너지 취약계층 입장에서 폭염 사실의 보도 보다는 심터 위치, 지원 대책 등 방법론을 더 궁금해 함. 짧은 뉴스의 한계는 있겠지만 지원 제도 등 정보를 뉴스 말미에 소개해주면 좋겠음.	폭염에 대한 사실과 실태에 대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대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안내도 중요함. 리포트와 스트레이트를 블록화해서 리포트 이후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소개를 별도로 배치해서 입체적으로 보도하겠음.	○		
보도	<뉴스 자막 안내 관련> 뉴스에서 아동학대를 보도할 때는 자막으로 아동학대 신고 번호를, 온열질환을 보도할 때는 자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면 좋겠음. 해당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조금 길게 노출해 주면 정보 제공이 용이할 것 같음.	온열질환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자막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임. 특히 어르신들은 IT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양	<오지랖 보건실2 관련>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음. 학생들의 깊이 있는 상담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고민이 중복된다는 느낌도 들었음. 더 다양한 고민들을 이끌어 내서 다뤄주길 바람	MC의 조합을 나름대로 최적으로 짜서 선택을 했는데 아나운서의 특성상 진행하고 정리하려는 성향이 있음. 촬영 시간이 짧아 학생들의 고민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점이 있었음. 편집을 통해 다양한 사연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음.	○		
교양	<‘땀나는 여행’ 코너 관련> 최근 지자체들이 당일형 보다는 체류형 관광지 소개에 집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음. ‘땀나는 여행’ 말미에 연계 관광 자원이나 숙박, 먹거리 등을 같이 소개해서 체험관광지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함	이영중 리포터의 ‘땀나는 여행’의 원래 취지는 현장에 가서 노동을 통해 땀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인데 긴 시간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 전달에도 신경을 쓰겠음	○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김옥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박은숙 위원,
이현옥 위원, 최승인 위원, 조정현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재우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최기웅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재우 경영국장
지금부터 7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늦게 참석하시는 이현옥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보도국장에 최기웅 국장이 임명돼서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시청자 게시판 의견 접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7건이 올라왔는데요. 내용 불만이 1건, 진행자에 대한 불만이 2건, 홈페이지 이용 불만 1건, 기타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0일에 올라온 폭행 제보 건은 홈페이지에 사건 제보 코너가 따로 있긴 하지만 간혹 이처럼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알수가 없어서 답글로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이후 연락이 없어서 관련 내용을 보도국에 전달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기존에 올라오든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의 인사 말씀부터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정부에서 폭염 경보를 내릴 정도로 심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김옥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신 후에 이어서

정기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장

지난달에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새로 선임된 세 분의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보통 회의에 8명 정도 참석하시는데 오늘은 6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새롭게 보도국장으로 선임된 최기웅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아무래도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뉴스에서 찜통 등 폭염과 관련된 이슈들을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지난해 대전 폭염 위험 지도로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를 수상하신 바 있으신데요. 올해도 이런 비슷한 기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보니까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데이터를 활용한 저널리즘은 잠시 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폭염 위험 지도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행정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혹은 또 지역적으로 지도가 변화된 부분은 없었는지 보완되는 보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단발성 보도에서 벗어나서 연속적이고 심층적인 보도가 가능하다는 점이기에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이건 사소한 부분인데, 7월 28일에 ‘밤낮 없는 찜통더위’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영상은 대전시 둔산동이 나왔고 그 장면이 끝나고 바로 시민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대전 지역 뉴스이다 보니까 시민도 대전시민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막에 부산광역시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생각한 게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전을 방문했다가 “부산만큼 대전이 덥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조금 연계가 됐을 것 같은데요. 고향이 부산광역시인지, 거주하는 곳이 부산광역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의 찜통더위를 얘기하는데 그 분이 부산광역시로 표기되다 보니까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옥 위원장

다음으로 박은숙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이번 달에 <오지랖 보건실 시즌2>가 시작이 됐는데 대덕고와 금산여고 두 편이 올라와 있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시즌1> 다시보기 조회 수가 300회에서 500회 정도 되던데요. <인생 내컷>이나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프로그램 조회 수가 100회~ 200회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즌2>에서 댄서인 하리무 씨와 남유식 아나운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리무 씨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활기를 더해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남유식 아나운서의 안정적인 진행이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 방식도 학생들의 고민 중심에서 교사들의 고민까지 확대됐더라고요. 상담 방식이라든지 참여 범위들도 확장되면서 <시즌2>가 <시즌1>의 장점들과 관심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는 학교들만 찾아냈는지 대덕고와 금산여고의 매력들을 잘 몰랐었는데요.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즌1>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즌2>에서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진행적인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예능 형식이다 보니까 깊이 있는 상담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았고, 고민이 중복되고 있는 느낌들,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일까... 더 다양한 고민들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아쉽게 들었습니다.

학교의 특색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장기 자랑이라든지 과학 동아리 고민 등이 곁들여 지던데요. 고민을 들여다보고 학생들과 함께 공감한다는 느낌보다 학교를 홍보한다는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특징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공감하고, 또 그것들을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편 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인생내컷> 7월 5일 135회와 7월 19일 137회 두 편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선자장 방화선 명장’ 편은 지금 계절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부채에 익숙한데 전통 부채를 소개하고 부채를 만드는 과정들이 명장의 삶의 발자국들과 잘 표현되었습니다. 전통 부채를 무심하게 봤다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채를 수집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137회는 지역을 담아내는 디자이너 유정미 님 편이었는데요. 제목으로 봤을 때는 디자이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정미 님은 지역에서 ‘오! 대전’ 프로젝트라든지 지역의 이야기들을 담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그동안 사라져 가고 있는 동네 서점들의 기록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주MBC에서 제작한 선자장 방화선 명장과 대전MBC에서 제작한 유정미 님 두 편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제작했지만 똑같은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라는 이야기를 두 방송에서 같은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연인가? 아니면 뭔가 테마들을 맞춰가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함께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정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
뉴스를 보는 시각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시청자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고 또 보이지 않는 가치들도 찾아내고 피해도 예방되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뉴스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시각에서 봤는데요. 7월에 접한 뉴스들이 거의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게 많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천리포 수목원 국가 유산에 대한 뉴스 보도가 될 때 설립자 원장님에 대한 초점만 맞춰 구성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수목원의 역사는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에서 많은 힘을 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다뤄졌으면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도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일쯤에 방송된 대전 서구 예식장 불법 영업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6월에 이미 조그마한 지역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대전MBC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보도가 됐더라면 피해를 막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예약한 사람도 없었을 거고 취소도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법 영업 사실만 보도 됐었고 소비자 피해나 이에 대한 행정 조치 등은 보도되지 않아서 저도 ‘불법 영업을 하는가 보네’ 하면서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소비자 피해가 그만큼 있을 거고 불법 영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됐다면 피해를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에서 매주 선정한 주제를 보면 제작진들이 지역의 현안들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대전충청의 메가 프로젝트는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쯤 <시시각각>에서 다뤄주시고, 또 부동산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서 대전은 어떻게 되고 있지 고민하고 있을 때 <시시각각>에서 다뤄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중앙 이슈에만 치우치지 않고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다뤄주셔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사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용어나 지역의 도시 계획 용어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자막으로 넣어 주거나, 패널분들이 말씀하실 때 아파트 영상만 나가던데 이럴 때 자료 화면이나 자막으로 용어들에 대한 설명 자료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승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인 위원
7월 9일 <시시각각>에서 청소년 ‘혐오 놀이’ 대책 관련 ‘교육’ vs ‘규제’ 방송을 봤습니다. 교육과 규제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 건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저희 아동 청소년 단체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작 논의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패널로 법학과 교수님과 리터러시 전문가, 교사 또 인권 단체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분석해 주셨는데 정작 청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이라든지 시각을 담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문제를 논할 때는 여성의 경험을, 장애인 정책을 논할 때는 장애인의 목소리, 또 노인의 문제를 다룰 때는 노인의 경험을 반영하듯이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는 역시 당사자가 포함돼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른들이 참석하는 패널이다 보니 주제 자체가 ‘리터러시 교육의 한계’, ‘사회 전반의 혐오 문화’, ‘교사의 교육적 개입에 대한 부담’, ‘정치적 갈등과 진영 논리의 혐오 문제’ 이렇게 타 이틀이 달렸는데요. 정작 아동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비춰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건 보호라든지 윤리적인 고려도 필요하고, 또 복잡한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현장에서 방송 것이 부족한 점도 있거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년까지는 참여되는데 아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의 핵심이 단순히 청소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혐오 표현과 이런 놀이의 토래 문화가 소비가 되는지, 학교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환경이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데 있었다면 청소년들의 참여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UN에 가서 발표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직접 참여하듯이 앞으로도 생방송에 참여가 어렵다면 사전 인터뷰나 현장 취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과 함께 그 관점을 같이 하고 말할 수 있는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폭염 관련 보도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온열 질환이라든지 에어컨 화재, 전력 사용 증가 등의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정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노후화된 냉난방 기기가 위험하고 에어컨 과열로 화재가 났다는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에어컨을 계속 틀어도 되는지, 선풍기를 틀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무더위 쉼터는 어디에 있는지, 냉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이 더 궁금하거든요.

물론 짧은 뉴스에서 길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부가적으로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겨울나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름 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영 방송으로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말미에 붙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M> ‘땀나는 여행’에서 대전 동물원 여름나기라는 프로그램을 담아주셨는데요. 누구 탓인지 대전 동물원에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있고, 과거에 청주동물원 갈비 사자에 이어서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보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대전 동물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당일형 관광지 보다는 체류형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1박 2일이나 장기간 묶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은 늘 당일 여행이 항상 이슈입니다. 성심당도 그렇고 대전동물원 오월드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한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 말미에 이들과 연계한 관광 자원이나 숙박, 먹거리 체험 등을 같이 소개해 주면 체험 관광지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생생한 장면들 현장감 있게 보여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
7월 대전MBC 뉴스는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과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 AI 산업 등 지역의 미래 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특히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2036년까지 자운대에 들어서고, 생도와 지원 인력 등 6천 명 이상의 인구 유입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기대된다는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한 점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 대전의 실익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자운대에는 육군교육사령부와 종합군수학교, 육·해·공군대학 등 주요 군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함께 육군교육사령부와 종합군수학교는 광주 상무대로, 육·해·공군

대학은 청주로 이전하는 재배치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기존 기관과 군 관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소비·지역경제 감소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대전MBC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기대와 각 군의 전문성 약화 우려, 지역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을 함께 전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설 정확한 부지에 현재 어떤 기관과 시설이 있는지, 기존 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것인지, 이전 인원과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합니다. 대전이 실제로 국방혁신도시로 성장하는 것인지, 새로운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대신 기존 핵심 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7월에는 집중호우와 폭염, 온열질환 등 여름철 재난·안전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전달해 생활 밀착형 지역 보도의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일회성 사건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피해의 원인과 관계기관의 사전 예방 조치, 피해 이후 복구와 제도 개선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주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7월 보도는 지역의 미래 산업과 시민 안전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충실히 다뤘습니다. 앞으로는 기관의 발표와 기대 효과를 전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 새롭게 들어오고 무엇이 빠져나가는지, 최종적으로 대전 시민과 지역경제에 어떤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비교·검증하는 보도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백강희 교수님 <시시각각> 진행을 잘한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교수님 말씀하신 폭염 지도 관련해서 저도 작년에 아주 인상 깊게 보도를 봤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계획이 있으시면 보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 말씀하신 여름나기, 특히 노인이나 빈곤층이 어떻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도 잘 담아서 방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신임 보도국장 최기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보직을 받고 현재는 출입처 개편 등의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다른 방송사보다 적은 인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뉴스의 가치와 본질을 찾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폭염 보도 관련해서 작년에 폭염 위험 지도로 데이터 저널리

증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 요소들을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포맷 중에 ‘뉴스 후’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정책으로 반영됐는지를 추적 보도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만 실제 정책 당국이 개선택을 내놓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본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할 때 도시 지역은 쉽터라고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금융기관, 학교, 호텔, 백화점 등도 있는데, 반면에 농촌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폭염 속에서 밭 작업이라든지 야외 작업을 해야 되는 취약한 상황인데 실제 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전국의 농협 점포들 5천여 곳을 무더위 쉽터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폭염에 대한 대응이 농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폭염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찾아보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축산이나 양식 어가들도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오늘 축산 쪽을 취재했습니다만 현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약벌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 계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도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찾아가는 게 뉴스로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리포수목원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국가 유산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자의 조성 과정에서의 기록물이 국가 기록유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천리포수목원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동안 조성되는 과정에서 설립자 한 명만의 노력으로만 이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찾아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불법 영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했다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시의성 있는 뉴스들로 대응해서 물론 확인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확인이 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보도에 주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은 사전에 세팅을 하기 때문에 패널 섭외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 호우처럼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시의성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해서 아이템과 주제를 선정하고, 기존에 세팅된 것들은 예비 아이টে으로 돌려서 가장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의 대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희 부위원장님 인터뷰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부산에서 오신 분이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대전이 전국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염 중대 경보일 정도로 더우니까 그 만큼 대전도 덥다는 표현으로 인터뷰를 구성했다라면 인터뷰이와의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시각각> 청소년 ‘혐오 놀이’ 대책들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동화를 위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왜 이 용어들을 쓰는지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 프로그램 내에서 스튜디오 출연이 제약 받을 수 있으니까 ENG로 촬영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인서트 편집을 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여러 목소리를 가감 없이 토론 프로그램 안에 넣고 패널들이 같이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관련 보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과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안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뉴스리포트 안에 넣으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주제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리포트를 받치는 게 스트레이트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기사를 블록화해서 리포트 이후에 지원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소개를 스트레이트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폭염에 대한 입체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전국적인 의제이자 지역의 핵심 이슈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해당 지역 부지 수용 가능성 문제부터 기존 기관 일부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대전으로의 이전에 대해 타 지역의 상실감 등 다양한 반대 여론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창설의 실익과 지역경제 효과, 그리고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 객관적이고 치밀한 후속 보도를 통해 지역민들이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폭염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저희 보도 대응 시스템과 뉴스를 통해 우리 지역민들이 더 안전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예방적, 제도적 보도들을 더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대전시교육청, 충남교육청, 배재대학교의 협찬으로 제작된 <오지랴 보건실 시즌2>를 6부작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전 대덕고와 금산여고 두 편이 방송됐고, 앞으로 당진, 아산, 노은, 대전외고까지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당진편에서는 2025년 MBC 대학가요제 금상을 수상한 배재대학교 Y507밴드 출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은숙 위원님께서 <오지랴 보건실 시즌2> 관련해서 공동 진행자 하리무 씨와 남유식 아나운서의 진행, 소재의 한정성과 학교 홍보 측면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예산안에서 MC의 조합을 나름대로 최적으로 짜서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C간의 나이 차이가 13년이고 아무래도 아나운서의 특성상 진행하고 정리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출연 학생들은 3학년은 공부를 해야 하고 1학년들은 낯설다고 해서 주로 2학년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해 주는 편이기는 한데요. 사연 많고 끼 있는 학생들을 선별할 때 고심해서 내주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상대적으로 열의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학교 촬영 현장은 상당히 즐겁습니다.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저희도 즐겁고 다양한 고민거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건 저희도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교감을 하고 실제 촬영은 이틀을 나갑니다. 사전 촬영으로 학교 전반적인 부분을 찍고 그 다음에 실제 MC가 나가는 촬영을 해서 이틀 동안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오는 한계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집할 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다양한 사연들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학생들의 고민에서 올해는 교사의 고민까지 확대된 건 잘 보셨습니다. 분명히 교사들도 학교의 일원이고 그들도 충분히 고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즌2>에서는 그 부분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생내컷>도 전주MBC가 공동 제작에 참여하면서 예향의 도시이다 보니까 확실히 소재가 다양해진 건 사실입니다. 전주 하면 문화재나 전통 유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했던 것 같고, 정신적인 측면들을 프로그램에 녹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준도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과 비슷했다는 것도 저희가 일부러 논의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결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좀 더 편안한 감정을 줄 수 있고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께서 <오늘M> 이영중 리포터의 ‘땀나는 여행’에서 체류형 관광지 소개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땀나는 여행’의 원래 취지는 리포터가 현장에 가서 일손을 돕거나 노동을 통해 땀의 소중함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많은 시청자들이 가도

될 만한 소재와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시간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용한 정보 전달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외 촬영이 뜨거운 여름에 많이 있는데요. 보도국도 마찬가지지만 제작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오지랴 보건실 시즌2> 4편도 남아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시청자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모니터링과 의견에 감사드리고 저희 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이나 답변 있으신지요?

최승인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아동 학대에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 화면 아래 흘림자막으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내보내거나, 온열 질환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온열 질환에 대한 신고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내보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말미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하고 끝나면 그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현재 가장 유용한 것은 동네 사거리에 지저분하지만 걸려 있는 현수막이 가장 큰 정보입니다. 뉴스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갑자기 든 생각이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콜센터 120 대표번호가 있으니까 보도 나갈 때 그 번호를 조금 길게 노출해 주시면 뉴스를 보면서 그 곳에 물어봐야겠다는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분야별로 대표 민원 상담 전화는 다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올랐고 뭔가를 준다고 했을 때도 알아보는 게 어렵거든요. 노인 학대나 아동 학대는 112로 통일돼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와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온열 질환을 보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자막으로 같이 처리하는 부분들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사이트를 소개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가 30~40초, 혹은 2분 20초 리포트 안에서 모두 전달해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트를 계속 노출시켜서 다시보기 영상에서도 정보들을 담아 놓는다면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병행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인 위원

예전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라고 안내가 됐었고 이제는 “우리집에서 확인하세요”그러는데요.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은 교과 과정에 있어서 그 용어를 알지만

어르신들은 누리집이 뭔지 모르시거든요.

최기웅 보도국장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들은 요즘 IT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추가 질문까지 받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 마무리 인사로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정현 위원님 신임 위원으로 오셨는데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종재 사장

오늘도 깨알 같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최승인 위원님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잘 수용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천안 지적장애인 폭행 사건 보도가 복수의 기자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폭행 장면을 취재기자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피해 관계자와 그 지역을 하나하나 취재해 가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서 얻어낸 장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점을 외부에서 높게 평가해 줬고 또 사회적인 이슈인 촉법 소년에 대한 논쟁을 이슈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들 잘 반영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영국장

이상으로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